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I

(요 4:9-22)

이종윤 원로목사

1. 다른 신앙은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주전 750년 전에 앗시리아가 이스라엘 북방지역을 침범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앗시리아에서 인근의 다섯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잡혼이었고 이 일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천대했습니다. 남왕국도 역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70여 년 만에 귀향했을 때까지도 피의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며 민족적 우월이나 피의 우월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잡혼으로 인하여 혼혈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천대를 하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주전 450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편리를 따라 예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파들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개혁교회를 만드느라고 모든 것을 개혁한 것은 좋는데 예배 의식마저 벗겨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강대상 위에 십자가 다는 일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으로 금지했습니다. 우상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종탑도 우상이 되고 강대상에 붙인 십자가도 우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배는 왜 또 금지하십니까? 형식과 위선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 채워진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자를 뒤집어엮으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조작한 방법이 싫어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신앙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구원은 인간의 조작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사람을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사람일 때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낳기를 미국에서 낳은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미국 시민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유대인이라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해 줍니다.

할례 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 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모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자식은 99%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종족적 우월감을 갖고 피의 순수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치당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진화론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진화론의 중요 이론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는 죽이고 강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적자이고 유대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열등한 종자를 죽이라고 해서 유대인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수한 민족, 열등한 민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할 것이라 하나 여자도 머리 좋은 사람이 많 습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할 것이라 하지만 흑인 중에도 뛰어난 천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을 종족별로 나누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종족의 담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구원은 종족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20 흥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오늘 3부 예배 시 / 설교 : 이종윤 원로목사

2020년 흥해작전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점에서 시작한 2020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는 서장원 목사를 강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구별로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온라인 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 2020 흥해작전은 끝났으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와 법원에서 대부분의 법적 재판에서의 승리를 감사드리며 안식년 본안 대법원 상고심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남아 있는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흥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설교로 오늘 3부 예배 시에 드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임훈규·김우균·김연화 양재영(호산나대학)
이지원(호산나대학) 이주현·이주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교육위원회 흥해작전 출석상 시상 특별행사 시상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계홍 장로)는 2020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7일 동안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중등부 출석상과 지난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한 특별행사(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5면, 6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개근 : (초등부) 장우정 조연우 조건우
- 출석 : (중등부) 정은지 임하린 장해운 이인애 정은재 (초등부) 이은익 배은찬 최주하 임하람 노윤 이시우 임하울 배은준 김하진 (유년부) 윤서진 김보민 최무진 김수아 노준 한세아 임준우 김하윤 김하준 최지성 김은준 (유치부) 최은성 최무건 한세희 김례아 (유아부) 김연준 (영아부) 최민성 심기연 최수아

총 36명

· 그림그리기

- 영아부 : 믿음상-최민성
- 유아부 : 사랑상-최아준 / 믿음상-이린하 심기찬 소망상-김연준 / 장려상-길리배
- 유치부 : 사랑상-오수빈 한세희 믿음상-김재경 유하민 소망상-김재윤 최은성 장려상-최무건 이하륜
- 유년부 : 사랑상-유하연 / 믿음상-노준 주하연 소망상-오유민 / 장려상-한세아 최지성
- 초등부 : 사랑상-노윤 / 믿음상-조연우 소망상-조건우 오선아

· 글짓기

- 유치부 : 장려상-오수빈
- 유년부 : 사랑상-임준우 / 믿음상-최지성 김하준 소망상-오승아 김은준 / 장려상-이하은 최무진 김수아 김재윤 김하윤 우정서
- 초등부 : 사랑상-한예승 / 믿음상-김도윤 임하람 소망상-최주하 / 장려상-장우정 임하울 주하은 우정균 김하진 오선아
- 중등부 : 사랑상-한예준 / 믿음상-문영은
- 사랑부 : 사랑상-공성광 / 믿음상-남단비 소망상-최지훈
- 일반부 : 사랑상-손영희 / 믿음상-임대중

총회임원회, 총회지침 요청한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1차 행정지시 유효, 재확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노2-17, 엠5:26-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서울강남노회장
참 조 시기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귀 노회의 “서장남 제66-020호 / 총회 행정지시 관련 질의 건(2020.5.29.)”과 관련한 회신입니다.

2. 총회재판국은 2019년 12월 10일 자료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시환 집사 외 36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국 판결취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취하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가 2020년 5월 19일 자료 “신청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이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본 총회임원회는 본 교단내 내부적 권징 및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서울교회에 행정공백을 일으키기 위하여 귀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시는 박노철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원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2-37호)과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 104-05호)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총회재판국 판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무효확인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함을 확인하며 이에 회신하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총 회 장 김 태
시 기 조 제

당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수) 총회임원회에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이 즉시 확정되어 서울교회는 곧바로 당회장이 결원되는 교단법상의 행정 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를 비호할 의도로 당회장 직무를 맡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서울강남노회에 속히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총회임원회는 2020년 5월 20일(수)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하는 긴급 행정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또다시 총회헌법위원회에서 위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이 헌법에 규정된 재판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며 이에 대해 노회로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17일(수)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가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심도 기각되어 총회헌법의

“
박노철 목사는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을 받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도 기각 총회헌법의 권징 절차상 내부적 재판절차 종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
.....
이러한 행정지시는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국가법원에서 판결무효확인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유효함
”

권징 절차상 내부적 재판절차가 종결되었고, 또 박노철 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박노철 목사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총회임원회는 교단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단의 내부적 권징 및 재판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서울교회에 행정공백을 일으키기 위하여 서울강남노회에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행정지시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정지시는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국가법원에서 판결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서울강남노회가 위 총회재판국 출교판결의 즉시 확정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헌법해석이나 항고 등을 핑계로 부당한 행정지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지교회회를 도와야 할 상회로서 오히려 교단법상의 지교회 행정공백 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강사 : 서창원 목사

6월 18일 (목)

참된 예배의 신학적 원리 (요 4:23-24)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특별히 공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1. 보편적 통일된 예배 형식(모범)이 있는 예배

예배에 보편적이고 통일된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특정인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같아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합당한 예식입니다. 대부분의 예배가 굉장히 육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에 더 집중하며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각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더 만족한 예배를 할 것인가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2.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최고 최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그 말 자체에 함축된 것처럼 사람들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으로 행해질 때 지존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예식이 됩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행하는 의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자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6월 19일 (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 4:23-24)

1.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곧 거룩과 영광을 요구합니다(레 10:3).

우리는 때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전 4:6)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으로 예배하라

①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롬 12:2). 구약에서는 외적인 형식에서 구별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상징적인 것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②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히 10:19-22). 이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순한 것입니다.

③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경외감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히 12:8). 경외심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계 5:11-14).

④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모든 것들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20일 (토)

공예배의 중요성, 그 유익과 특권 I (시 87:1-3)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데다”(시 87:2). 야곱의 모든 거처는 성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 혹은 사적인 예배를, 시온의 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처소에서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그 보다는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신 12:5-7).

그러면 공예배의 복과 유익, 그리고 특권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은 공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경배하는 것보다 많은 사

람들이 모여 경배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시 22:22-25). 공예배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말 1:6-8 11).

2. 공예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많이 크게 나타나다

“내가 내 이름을 기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출 20:24) 마 18:20 절에서 주님께서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3. 공예배에서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이르기까지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에 여호와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시 27:4).

4. 공예배에 더 많은 영적 유익이 있다

목자는 주님께서 공예배를 집전하도록 세우신 교사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서 먹을 영적 양식과 쉼이 무엇인가를 지도 받습니다. 성도는 목자들을 통해 영적인 위로와 양식을 얻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성도는 공예배를 통해서 목자들이 눈물로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6월 22일 (월)

공적 예배의 유익과 특권 II (시 87:1-3)

1. 공예배는 성도들을 더 굳게 세운다

사적인 예배는 개인만이 유익을 얻게 되지만 공예배는 온 회중에게 유익이 넘칩니다(속 8:20-21, 시 34:3). 요즈음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간혹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같이 냉랭한 자들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공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2. 공예배는 타락(배교)을 방지하는데 효과적

개인 경건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신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인의 신앙 검증을 공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 다니며 망명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그 때 다윗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삼상 26:19). 공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3. 공예배는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운 처소이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상의 모습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배가 모두 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시 84:1-2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모함의 충족이 주의 장막에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공예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개인의 경건 시간은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 공예배는 가장 큰 자비를 얻는 최고의 시간

공예배는 가장 큰 심판을 피하는 최고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행 12:5-17).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분, 우리를 파멸에서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시니 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 23일 (화)

사적 경건시간이 더 은혜롭지 않은가? (마 15:7-10)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성령이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어서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예배는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별 감동이 없다고도 합니다.

1. 판단의 기준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개인의 경험과 감정, 체험이 우선되면 사단은 즉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를 미혹합니다. 경험은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의 교훈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느낌은 객관적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보다 화로에서 더 큰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태양보다 화로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경험에 의한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2. 특수한 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

공적인 모임이 막혔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개인적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예

배를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시간의 힘은 공예배를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3.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는 공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이다

사적인 시간에 가지는 보충적인 은혜, 확장되는 은총, 주님을 향한 더 짙은 애정표현은 언제나 공예배에서 이어지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공예배의 유익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후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4. 공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의 태도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예배가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에 기반하여 집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 1:15-16절에서 모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 혹은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6월 24일 (수)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치 못한 예배 (시 29:1-2)

시편 29편은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 공예배보다 못한 일을 선호하는 행위

공예배보다 개인적인 의무를 더 선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편리주의를 추구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고, 세속주의에 빠져 경건을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예배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2. 개인적인 경건시간으로 공예배 시간을 대체하는 행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면 우리는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원칙대로 예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곧 품위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경시하면서 개인의 경건시간은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리라고 기대하

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3.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지 않는 행위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며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6월 25일 (목)

공예배에 생명을 걸라 (시 100:1-5)

시편 100편은 성도가 공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공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1.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방편이 예배입니다.

2. 우리의 생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고 힘을 얻는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3. 여호와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시 30:5).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여 우리의 삶을 무덤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은 너무도 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다 선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예배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 가십시오.

맺는 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정리 : 허숙 권사

2020 흥해작전

흥해작전을 마치며



박상훈 집사
(2020 흥해작전 기획팀장)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흥해작전에 동참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흥해작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외침에 부흥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앞에 놓인 흥해를 가르고자 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6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새벽기도회에는 300~600여 명이 접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흥해작전에 참여하였고, 6월 18일부터 전 교구를 4개의 주력교구로 나누어 주력교구에 속한 교인들만 출석하도록 제한하며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매일 85명에서 124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등 흥해작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서울교회의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서울교회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였고, 부목 사님들과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 서울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시편 87:2)'라는 말씀으로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

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출애굽의 여정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19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흥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편의주의에 안주하려 했던 생각,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 상임주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 삼겠다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공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므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악한 사탄·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온갖 방법으로 서울교회를 공격하였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가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사랑 서울교회! 흥해작전!



오수빈 (유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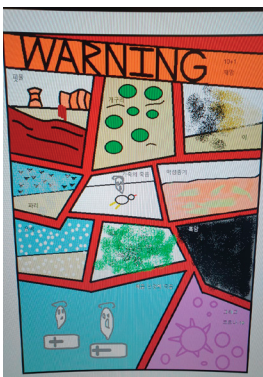
오유민 (유년부)



노준 (유년부)



유하연 (유년부)



조연우 (초등부)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신임에 응답하소서!

서익숙 권사(12교구)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돈에 빠져있는 이때 서울교회는 올해도 6월 흥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합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교회 분쟁의 상처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믿음생활까지 통제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보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허락받은 편의주의로 자연스럽게 안주하려는 연약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될까 염려될 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공예배의 중요성과 귀중함을 새삼 깨우쳐 주셔서 혹여 느슨해진 우리들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준비하며 사모하며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울교회 분쟁을 종식시킬 대법원 상고심의 선고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각각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사 아직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사실을 호도하며 흠여짐을 막기 위해 간간힘을 쏟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소서. 지금까지 저들이 쌓아둔 거짓말과 악행의 열매를 저들이 모두 먹게 하시고 스스로 분열되어 일곱 길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불꽃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은 이념과 세대 간 갈등으로, 교육은 온통 좌경화로, 사회는 통제사회를 연습시키며, 국방은 자진 해체 수준으로, 경제는 곤두박질에 빛더미,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 거꾸로 가는 외교력으로 풍전등화,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는 꿈과 비전을 빼앗겨 버린 암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며,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랄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오니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원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각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채 세상적 부흥과 풍요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참람한 죄악을 서슴치 않고 저지른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교단적인 대 각성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죄로 물든 이 땅을 정결케 태워 주시사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읍나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서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어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손영희 집사 (8교구)

내 리막길이 연속인 험난한 광야를 얼마나... 오래...
우리가 지나왔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 랑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랑 떠러지가 끝없이 출몰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서 러워 낙심하고 포기했겠지요
울 부짚으며 잃어버린 목자를 애타게 찾는 어린양처럼 깊은 슬픔에
잡혀만 있겠지요
교 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회 개하는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서울교회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속히 보게하시어

임준우 (유년부)

흥 해작전 처음으로 참석할 날
해 가 뜰듯 말듯 마스크를 잠시 벗어보니 공기는 상큼
작 정하고 긴장하며 준비하니
전 날부터 설친 잠이지만 주님 만난 오늘 새벽 너무 행복하다

임대중 집사 (12교구)

내 사랑 서울교회는
사 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랑 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분쟁의 시간 속에서도
서 로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울 린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 제와 성도들간의 위로, 격려, 사랑이 가득하며
회 복과 치유가 상식이 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공성광 성도 (사랑부)

내 가 제일 좋아하는
사 랑하는 서울교회
랑 만적인
서 울교회가
울 타리처럼
교 회가 그리워요
회 복해 주세요

남단비 성도 (사랑부)

내 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 랑이 넘치는 교회
랑 만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서 울교회에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교회
울 면서 기도하는 기도모임
교 회학교가 다같이 드릴 수 있는
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교회

한예준 (중등부)

흥 해를 건너
해 돌는 가나안으로
작 전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전 진하자 맡기신 그 길을

최지성 (유년부)

흥 해를 건너게 해 주신
해 같은 예수님
작 은 기도도
전 부 다 들어주세요

한예승 (초등부)

흥 해를 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해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예요
작 년 예배당에서 마스크없이 기쁘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전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의 흥해를 갈라주세요



오선아 (초등부)



조건우 (초등부)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7월 5일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2020년 상반기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전쟁의 위협 없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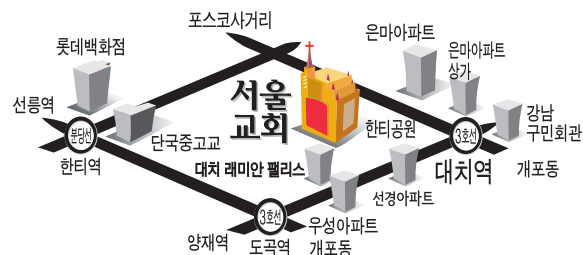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9일	월	시 103-105		창 1-7	
6월30일	화	시 106-107		창 8-13	
7월1일	수	시 108-112		창 14-19	
7월2일	목	시 113-118		창 20-24	
7월3일	금	시 119:1-80		창 25-30	
7월4일	토	시 119:81-176		창 31-35	
7월5일	주일	시 120-129		창 36-41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